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장헬렌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2:25-35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비방 받는 표징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월 7일(신년주일)	1월 14일
서경열	최은숙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8) 마음에 새겨진 평화

본문 : 눅2:8-20

기독교의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진리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기적인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요, 가치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이 맞아 떨어져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그것도 말구 유에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예수의 탄생부터 기독교는 엄청난 진리를 품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우상이 되어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천민의 아들로 태어나 낮아지심으로 그것이 표징이 되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평화를 주고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도 누가복음은 목자들이었다가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당시 시대속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여겨지던 자들이었고, 심지어 윤리 도덕적으로도 순결하지 않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하고 죄 많은 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게 하셨을까? 바로 그 목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기쁨이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과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 일을 모두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상이 여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하게 오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이 상황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소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에도 똑같은 반응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깊이 묵상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보면 고요한밤, 거룩한 밤 이라는 찬송사가 있는데 그 찬송사가 쓰여지게 된 배경도 한 성당에서 오르간이 고장나자 기타 반주에 맞춰 함께 부를 찬송을 짓다가 나온 시였습니다. 그 첫가사가 고요한 밤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탄생을 깊이 묵상했더니 고요한 밤이 먼저 나옵니다. 화려하지 않다는 뜻이고,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